
		보 도 자 료		수도권매립지 종료
		배포일자	2022년 4월 6일(수) 총 2매	 환경특별시 인천
담당 부서	공원조성과	담당자	• 공원조성담당 김영미 ☎440-7036 • 담당자 이 완 ☎440-7039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년 만의 벚꽃구경 ... 인천 공원으로 오세요

- 인천대공원, 월미공원, 수봉공원 등 전면 개방 ... 대규모행사는 개최하지 않기로 -

3년 만에 인천대공원, 월미공원 등에서 벚꽃을 맞이할 수 있게 됐다.

인천광역시는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 따라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이 벚꽃을 즐길 수 있도록 벚꽃개화기에 인천대공원, 월미공원, 수봉공원 등 벚꽃 명소 공원을 전면 개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 방역대책의 일환으로 주요 벚꽃 명소 공원에 대하여 벚꽃개화기에 공원출입을 전면폐쇄 해왔다.

시는 공원은 전면개방 하지만,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대규모 행사는 시행하지 않을 예정이다. 또한 주요 동선에 방역소독을 강화하고 공원 방문객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홍보 및 계도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유광조 시 공원조성과장은 “3년 만에 개방하는 공원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벚꽃을 즐기시기 바란다.” 고 말했다.

<붙임자료> 인천대공원 벚꽃사진 1부. 끝.

